패러다임의 전환 :

제7회 제주사회적경제 세미나

포용적 혁신성장, 사람중심의 경제도시 JEJU

Q 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Q 공공과 민간의 새로운 협력의 촉진, 사람중심 경제가 살아있는 제주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19. 05. 14. 화요일 14:00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JRI 제주연구원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JEJU SOCIAL ECONOMY CENTER

세미나 일정 안내

시 간	세부내용
13:40~14:00(20분)	등록 및 접수
14:00~14:05(5분)	국민의례 및 인사말
14:05~14:10(5분)	내빈소개
14:10~14:20(10분)	축　　사
14:20~15:00(40분)	**기조발제1.** **포용적 혁신성장 모델 : 피츠버그와 클리브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신경제 이니셔티브 빈재익 박사)
15:00~15:40(40분)	**발제2.** **포용적 혁신성장, 사람중심의 경제도시 제주로**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강종우)
15:40~16:00(20분)	휴식 및 네트워킹 / 내가 생각하는 포용적 도시란?
16:00~16:50(50분)	**토크콘서트 : 진행자_SE임파워 김성기 박사** (발제자 2명 + 패널 3명) 패널 : 제주도 미래전략국 노희섭 국장 제주연구원 고태호 박사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김종현 대표
16:50~17:00(10분)	마무리 및 폐회

포용적 혁신성장을 담보하는 사회적경제 모델

피츠버그와 클리블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빈재익 박사(동아시아 신경제 이니셔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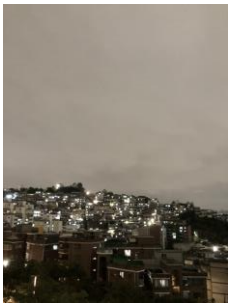
포용적 혁신성장을 담보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

피츠버그와 클리블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빈재익 박사(동아시아 신경제 이니셔티브)

목차

1. 서론
2. 사례 1: 피츠버그
3. 사례2: 클리브랜드
4. 제주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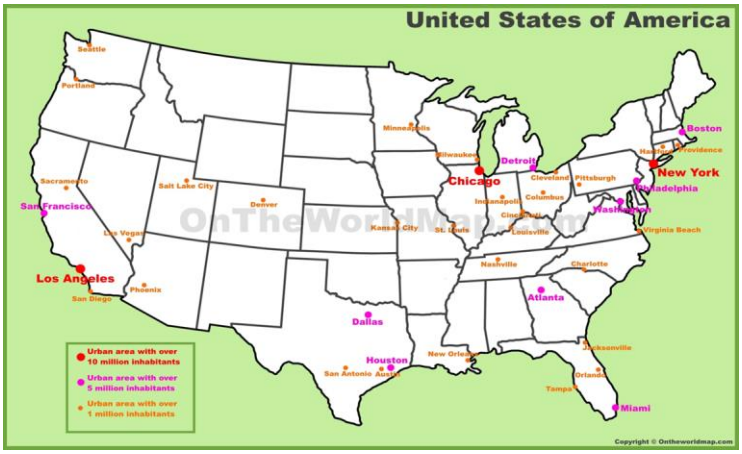
서론

2019년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International Visitor Leadership Program을 이용해 미국 방문

제조업 재활성화와 이를 통해 도시활력제고에 나선 피츠버그와 클리브랜드에서 포용적 혁신성장모델 관찰

주정부 혹은 시 정부, 그리고 이와 협력하여 기업과 대학 혹은 startup 등 혁신성장의 주체를 지원하고 포용성장을 실천하는 조직을 방문하고 포용적 혁신성장모델을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 에코시스템 발견

서론



서론

포용적 성장을 담보하는 사회적 경제

What are the alternatives?

- 지속가능성을 상실한 경제
- 고용 없는 경제성장
- 빈부격차 심화
- 서울/수도권 vs. 지방 격차심화
- 지역 내 격차심화, 성장동력 부재

현재 거시 경제 정책으로 충분한가?	4차산업혁명의 영향 하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관리는?	지역 간/내 불균형 및 경제의 침체 가속화	지역 차원의 성장 동력 취약
•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제성장 •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경제 등	• AI와 자동화하에서 안정된 노동환경을 통한 사회의 지속가능성 담보	• 중앙정부 혹은 관료 중심의 혁신 유도로 민간 혁신주체 성장 미흡	• 지역산업기반 황폐화

서론

성장동력 저하, 고용 창출력 약화 ⇒ **혁신성장**
우리 경제와 사회의 구조 및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사람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전략

분배 없는 저성장구조, 소득양극화,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 생태문제 ⇒ **포용적 성장**
대기업, 선도산업, 중소 및 중견기업, 신생 창업기업, 노동자, 지역사회 등 모든 국민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혁신과정에 참여하고 혁신성과를 함께 누리도록 하는 전략

배타적 소유권, 대중의 소외와 경제력 집중 ⇒ **사회적경제**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복지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발전, 기타 공익에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 지식경제로 이행: 규모의 경제에서 네트워크 경제로, 물적 자본 중심에서 아이디어와 혁신기술 중심으로
- 스마트 공장 등 효율적 생산시스템
- 혁신역량-투자-창업을 연결해 혁신 거점 조성
- Negative 방식으로 규제 체계 개혁
- 벤처캐피탈과 창업안전망

-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아니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중심가치로 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혁신 추진
- 공공조달시장이나 민간 조달시장을 통한 지역 상공업자 대상 구매 우대 및 지역 주민 우선 고용 정책 추진
-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로컬푸드 운동, 공정무역, 도시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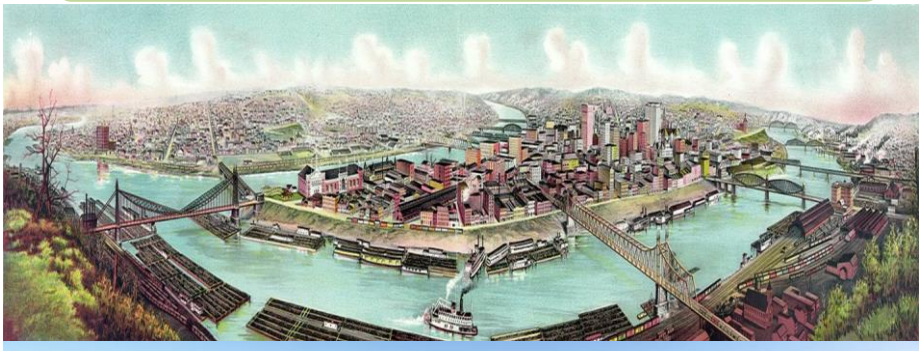
- 협동조합, 마을기업, 비영리 사회적 기업, 신용조합과 마이크로 금융, 비영리단체, 자선단체, 사회투자부문
- 관계재(교육, 보육, 보건, 돌봄 서비스 등)를 공급하는 사회서비스 부문
- AI, 빅데이터분석 등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공공재화

사례 1: 피츠버그

(2010년 인구조사) 피츠버그 : 305,704;
Urban Area : 1,733,853;
Metropolitan Area : 2,360,867

- 20세기 피츠버그의 역사는 U.S. Steel의 부침과 큰 연관을 가짐.
- 1901년 카네기가 주도한 합병으로 탄생한 U.S. Steel은 성장을 거듭하여 340,000명 이상을 고용한 적(1943년)도 있으나, 이후 종전,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생산규모가 하락하였고 고용인원도 축소하여 2000년 52,500 명, 2018년 29,800명임.
- U.S. Steel의 쇠퇴로 인한 지역경제 기반의 위축으로 많은 기업의 본사가 뉴욕 등으로 이전하면서 생산직 노동자의 대량실업 뿐만 아니라 사무직 노동자의 대량실업 발생
- 이후 피츠버그는 National Robotics Engineering Center, 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 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 등 지역 소재 연방연구기관과 카네기멜론, 피츠버그 대학 등 지역 소재 68개 대학(전문대학 포함)을 기반으로 자율기술, 로보틱스, IoT, 클라우드컴퓨팅 등에 강점을 가진 첨단기술주도의 혁신허브로서 진화함.

사례 1: 피츠버그





사례 1: 피츠버그

도시재개발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 피츠버그의 경제발전 담당기관으로 고용창출, 조세기반 증가, 도시 산업 및 지역 활성화, 도시의 거주 적합성 제고 등을 목표함.
- 2016년 재원 규모는 1억2천만 달러인데 연방 및 주정부의 교부금(55%), URA 대출금의 원리상환금(18%), TIF&PTD(11%) 등이 주요 재원조달원임.
- 재원사용은 받은 교부금에 연결된 사업에 대한 지출(51%), URA사업을 위해 시가 발행한 채권이나 대출에 대한 원리금 지급(22%),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업이전비용, 기업확장비용, 주택건설비용 등을 위한 대출(13%) 등임.
- 2014~2016년 URA는 585건(총투자비용 40억 2천2백만 달러)에 3억 3천4백만 달러를 투자해 18,655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1,069채 주택이 건설됐는데 이 중 666채가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임.

사례 1: 피츠버그

도시재개발청의 대표 프로젝트: East Liberty Transit Center

- 6 에이크 면적의 황폐화된 산업부지를 버스, 기차, 자동차, 택시,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환승센터와 주택, 상점, 주차장 등으로 재개발하는 사업
- 총 사업예산$158 M 중 공공자금은 $54 M임.





사례 1: 피츠버그

PGH Lab

- 피츠버그와 인근 지자체가 혁신 스타업과 계약을 통해 3 내지 4개월 기간 동안 해당 혁신 스타업이, 지역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역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임.
- PGH Lab의 대상이 되는 지역문제는 기후변화, 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 효율성 제고, 대기오염, 수도물 수질관리, 포화상태에 이른 사회간접자본시설, 재활용 쓰레기 분류,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 등임.
- 참여하는 혁신 스타업들은 직접 자금지원을 받지는 않지만 PGH Lab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지자체의 장비, 인적자원, 기반시설을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테스트할 기회를 얻어 투자자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음.
- 2016년 8월 이후 4번에 걸쳐 대상 기업을 선정했는데, 지역사회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한 23개 기업이 선정돼 제품 및 서비스를 시험할 기회를 누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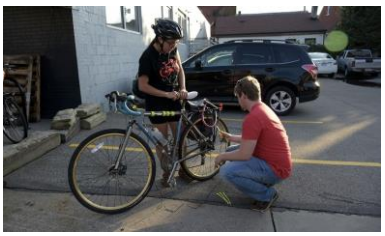
사례 1: 피츠버그

PGH Lab: 2016년 선택 기업

- Hibersense
- Renergé
- Transit Sou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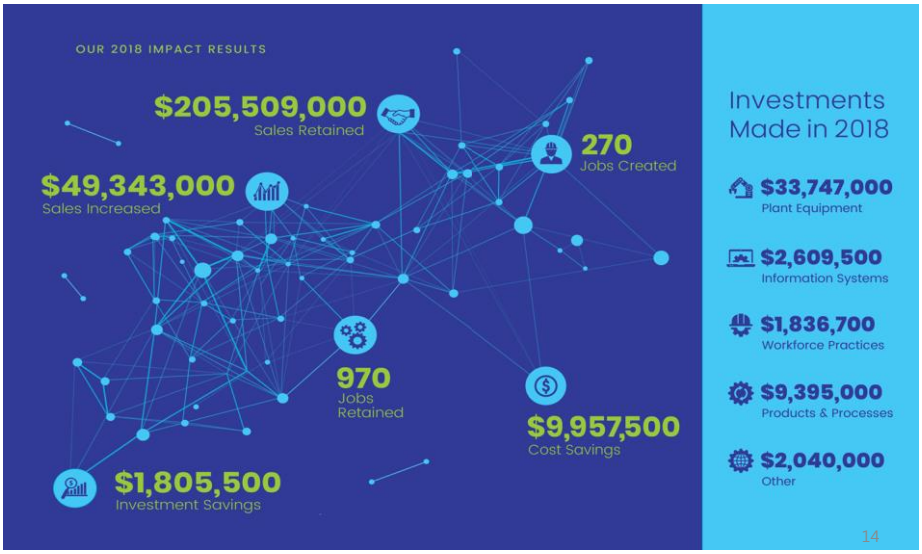
사례 1: 피츠버그

Catalyst Connection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략 및 시장 자문을 하는, 펜실베니아주에 소재하는 7개 Industrial Resource Centers 중 하나로 주 정부의 공동체와 경제 발전 부처의 지원을 받으며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민간협력 협력 사업인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에 참여함.
- 비영리조직으로 급변하는 시장상황, 새로운 기술의 등장, 글로벌화로 인한 경쟁 압력 등으로부터 중소제조업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 자문과 노동자 훈련을 제공함.
- 기업의 지속가능성 추구를 지원함; 지속가능성은 기업의 성장전략의 환경적 책임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하는 개념임.
- 재원조달: 개인의 기부 등(1.5M, 30%), 수입 수수료(1.4M, 28%), 주정부기금(1.1M, 21%), 연방정부기금(1.1M, 21%)
- 재원사용: 제조업자문(87%), 노동교육(8%), 행정비용(5%)

사례 1: 피츠버그

Catalyst Connection



사례 1: 피츠버그

Innovation Works

- 자금지원, 사업 및 기술 자문, 혁신전문가 네트워크 연결 등을 제공하는 Ben Franklin Technology Partners의 일원으로 피츠버그를 포함하는 펜실베니아 남서부에서 가장 큰 seed stage 투자자임.
- startup 설립부터, 성장에 필요한 재원발견 그리고 사업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자금조달 등 모든 단계에서 기술기업가를 지원함.
- 1년 운용 자금 규모 $5million (약 56억원); 투자 자금; 재원은 주정부 교부금 50%, 기존 회수 자금, 벤처투자사 매칭 자금 등임.
- 20년간 376개(연간 20개 내외) startup에 $78 million 투자했고 이런 Innovation Works의 초기투자는 $2.1 billion의 후속투자로 이어졌음.
- startup기업을 지원·육성하고 서로 혹은 기존기업들과 연결해 기업활동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펜실베니아 남서부를 미국 전역에서 혁신 startup과 기술투자자들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투자 및 지원 분야는 피츠버그 지역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는 로보틱스, 인공지능, 의료기구, 소매 기술, 기업용 소프트웨어 등임.
- 혁신벤처의 창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Innovation Works는 지역 소재 기업, 대학, 정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함.

사례 1: 피츠버그

AlphaLab & AlphaLab Gear

- Innovation Works에서 운영하는 accelerator 프로그램으로 제품 및 고객 개발의 초기단계에 관여하며 보다 개인화되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 사이클당 6 내지 8개 기업에만 집중함.

- AlphaLab은 고객기업들이 목표로 하는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① 최고의 멘토, 전문가, AlphaLab의 서비스를 통해 성공한 기업들과 연결;
② 산업의 리더가 작성한 주간 프로그램;
③ 협업적이고 구조화된 작업공간에 마련된 사무실 공간;
④ 5만 달러 이하의 자금지원과 Innovation Works이 운영하는 seed fund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기회;
⑤ global accelerator network를 통해 80만 달러이상의 특혜 제공함.

사례 1: 피츠버그

Innovation Works의 대표적 투자사례

- Wombat Security: 카네기멜론대 school of computer science 연구실에서 유래한 anti-phishing filtering solution, 사이버시큐리티 소프트웨어 훈련 및 여과 기술 제공; 2018년 3월 Proofpoint, Inc 인수됨.
- Complexa: 피츠버그대학 교수들이 설립한 생약제조 기업으로 국소분절사구체경화증과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를 개발해 임상단계를 거치고 있음.
- ModCloth: 의류 쇼핑몰, 소비자 공동체 형성을 통한 스타일 자문, 이익공유 등 실현
- Civic Science: 웹 기반 여론조사 기업. 독자적인 Database 기술과 소프트웨어 개발로 보다 신속하게, 보다 광범위한 소비자 및 대중의 기호와 의견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을 기업과 정책담당자에게 전달함.
- ShowClix: 소셜 미티어에 기반한 티켓 판매 및 구매 서비스 제공 기업.
- NoWait(Yelp 인수): 레스토랑에게는 예약 및 대기자 관리를, 소비자에게는 모바일폰을 통해 대기자 현황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 레스토랑의 예약자, 대기자 및 이용가능성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 Shoefitr(Amazon 인수): 신발류의 온라인 fitting 플랫폼
- Mobile Technologies (Facebook 인수):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Advance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t Carnegie Mellon University (Pittsburgh and Silicon Valley) and 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 Germany와 공동으로 jibbigo 모바일 기반의 통역 앱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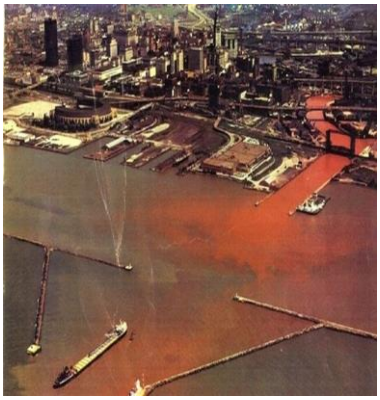
사례2: 클리브랜드

2010년 인구조사 클리브랜드 : 396,698
Urban Area : 1,780,673;
Metropolitan Area : 2,055,612

- 이리운하를 통한 수운과 철도운송을 기반으로 철강업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이뤄졌으나 1970년대 이후 지역의 산업쇠퇴로 인해 인구감소, 빈곤 증가, 지역 주택시장의 퇴조, 물리적 퇴락과 조세 기반의 감소 등이 발생했음.
- 1990년대 교외지역 전반적인 고용 증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나 도심지역의 침체는 지속됨.
- 2000년대 클리브랜드는 몇몇 기술집약적인 부문에서 성장을 경험했고 과학기술, 건강 등의 부문에서 고용 기회가 증가했으며 그로 인해 도시에 거주하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이 증가함.
- 그럼에도 여전히 빈곤은 상대적으로 높음; 실업률은 전국 평균 수준이지만 임금은 평균을 하회함.
- Northeast Ohio의 입지조건: ① 낮은 세율과 기업 우호적인 규제 시스템을 갖춘 경제; ② 식품, IT, 항공, 금융, 생명과학, 플라스틱, 화학, 금속, 자동차 등에 경쟁력을 갖춘 지역; ③ 뉴욕과 시카고 사이에 위치한 전략적 입지; ④ 고가치 생산과 생산성에 집중된 노동력; ⑤ 수자원과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사례2: 클리브랜드

- 1950년 910,000명이던 클리브랜드의 인구는 2010년 400,000명 수준으로 감소했음.





사례2: 클리브랜드

Greater University Circle Initiative

- 도시의 거점기관(Cleveland Clinic, University Hospitals of Cleveland,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등), 공공부문 그리고 자선기관(Cleveland Foundation) 간 파트너쉽을 통해 포용성장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경제발전 전략임.(2005년에 시작)
- University Circle + 7 지역: 1880년대부터 1961년 기간 동안 형성
- 2012년 지역가구 소득의 중앙값은 $18,500; 실업률 24%(클리브랜드 2018년 $26,179, 6.5%, 미국 $53,482, 3.9%)
- 17개 주요기관은 60,000개의 일자리(쿠야호가군 전체 일자리의 1/8), 최근 5년간 4,500개의 일자리를 공급했으며 향후 5년간 3,000개의 신규 일자리 추가 공급 예상
- Greater University Circle Initiative의 두 가지 전제:
  - ① 함께 일을 함으로써 거점 기관은 홀로 일하는 기관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다;
  - ② 도시 재활성화에는 물리적 발전이 중요하지만, 도시의 각 구역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존중 받고 권능을 부여 받지 못한다면 재활성화에 성공할 수 없다.

사례2: 클리브랜드

Greater University Circle Initiative



사례2: 클리브랜드

Greater University Circle Initiative

- Greater University Circle Initiative 4가지 **프로그램 영역**
  - ① **기관 간 파트너쉽(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창조);
  - ② 물리적 개발(도시 구역들을 다시 연결하는 교통과 부동산 프로젝트 촉진);
  - ③ 경제적 포용(거점기관 등이 지역 제품을 구매하고 지역인을 고용함으로써 기존 주민과 새로 유입된 주민들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함);
  - ④ 공동체 약속(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을 활성화 프로젝트의 저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여타 경제통합 프로그램

① Anchor procurement and supply-chain initiative: 3대거점기관의 조달시장 지역할당 (14%, 28%)
② NestStep Program: 고용을 유지/확대하도록 해당 지역 사업주들에게 강습과 지원 제공해 지역 활성화 유도
③ Evergreen Cooperative: 노동자 소유 기업 설립을 통한 신규 고용 추진: Evergreen cooperative laundry(39) Evergreen Energy Solutions(14) Green City Growers(31); 주거구매지원프로그램운용
④ Anchor Hires: Setup to UH, Welcome for Fairfax programs
⑤ NewBridge Cleveland Center for Arts and Technology: 청년/실업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127명 중 109명 수료 69명 고용
⑥ Greater Circle Living Program: GUCI 노동자 241명 $2.6M
⑦ Neighborhood Connections: 지역 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사업 지원과 보조금 지급

사례2: 클리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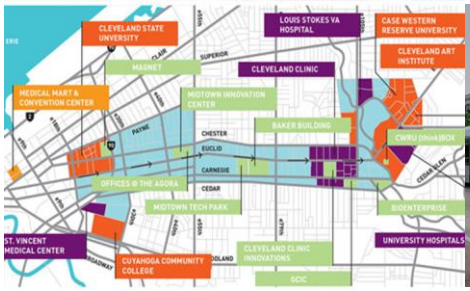
Health Tech Corridor

- Greater University Circle Initiative 하에 추진된 프로젝트임.
- University Circle 지역을 생의학·보건의료 특화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거점기관이 된 병원, 대학 외에 벤처기업 육성기관, 첨단 기술 기업들을 유치하고 침체기 동안 이 지역에서 거주해 온 주민들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들 기관과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 성장과 도시재생을 동시에 추구하는 프로젝트임.
- 생의학·보건의료 특화지구에 부합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로 신규 초고속 스피드 광섬유 통신망 구축을 포함하는 경제 발전 프로젝트 발표
- 거주민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변 지역과 경제활동 거점을 연결하는 간선 급행버스 노선 신설
- 기술분야에 관심이 있는 여성과 소수민족 거주자들에게 코딩 아카데미 개시
- 버려진 산업부지에 대한 대규모 복원사업과 지역 건축물에 대한 보수 작업

사례2: 클리브랜드

Health Tech Corridor

- University Circle에서 도심을 연결하는 면적 1,600 에이커(20,000평).
- 4개 대형병원, 6개의 기업 인큐베이터, 4개의 아카데미 센터, 130개 이상의 첨단기술 및 혁신 기업 등이 존재해 이들에 대한 근접성을 이용할 수 있는 바이오 의료, 보건의료, 기술 기업들에게 최상의 입지 제공
- 2008년 이후 1,800개 신규 일자리, 500,000ft² 신규 사무실 공간, $40억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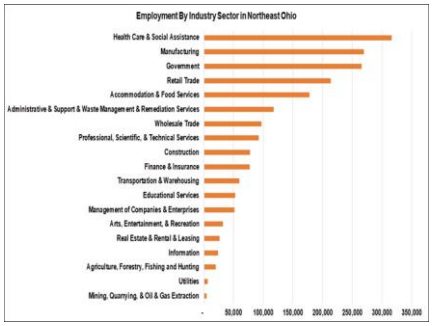
사례2: 클리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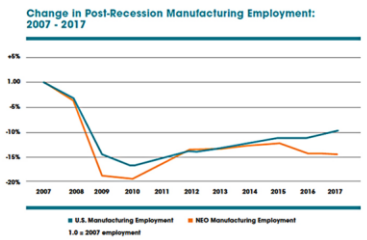
Team North East Ohio (Team NEO)

- 2003년 지역주의와 협력을 기치로 FirstEnergy Corp.과 지역 상공회의소, 지역발전단체 등의 기금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 경제개발기관으로서 지역 주요 기업, 재단, 상공회의소, 여타 경제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지역 마케팅 활동을 통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포용적 혁신성장을 옹호함.
-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고용 및 경제 성장을 제고하고 지역 모든 계층의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는 지역의 경제경쟁력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산업 유치, 보유, 확장을 통해 고용창출과 신규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Ohio의 민간 비영리 경제개발법인인 JobsOhio의 지정 네트워크 파트너임.
- Team NEO는 기업들에게 서로 맺은 관계를 통해 보다 향상된 성과를 획득하도록 하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적 가치를 창조함.
- 플랫폼을 통해, ① 새로운 기업의 형성 장려; ② 기존 기업들의 성장 지원; ③ 기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 지원; ④ 기업들의 best practices 공유 등을 실천함.
- 보다 구체적으로 Team NEO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 ① 규제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움; ② 사업 및 전문 서비스 제공자 소개; ③ 무료 부지 알선 서비스; ④ 금융 인센티브; ⑤ 인재 획득; ⑥ 업체 연계 등

사례2: 클리브랜드

Team North East Ohio (Team NEO)





사회적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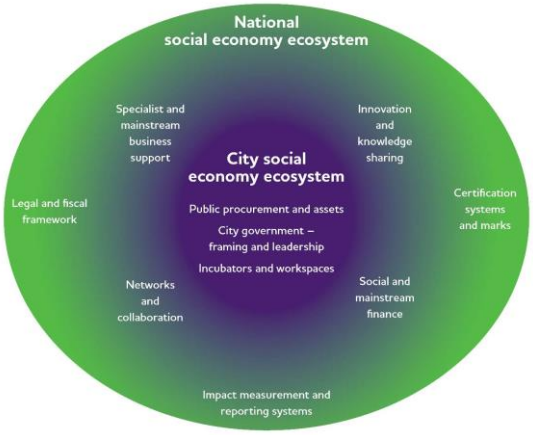
- 사회적 경제는 단순히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장치가 아니라 시장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소외 구성원들을 포용하는, 경제문제에 대한 접근방법과 경제구조를 혁신하는 것임.

- 사례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강점을 보인다고 알려짐.

  a. 고용가능성 제고: 직접 우량 일자리 창출, 청년 혹은 실업자 (재)취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여성 취업 제고를 위한 육아서비스 등 제공
  b.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새로운 기업 및 산업 발생, 지역 조달시장 및 B2B시장에서 사회적 경제주체 비중 확대
  c. 경제 및 사회 전환: 직업 안정성이 증가한 경제, 사회적 책임성과 포용성을 가진 경제, 사회적 가치주도 경제

사회적 경제 에코시스템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은 다양한 지원 제도 및 조직, 사회적 경제 주체 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주체와 민간 및 공공 경제주체 간 긴밀한 협업 등을 아우르는 사회적 경제 에코시스템을 전제함



사회적 경제의 에코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

• 피츠버그와 클리브랜드 사례와 다른 연구결과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의 에코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음.

1. 지방자치의 강화로 경제 및 사회 정책분야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과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사회적 경제 이해와 구상, 그리고 이를 입법화하고 정책화하는데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쉽과 지배구조
2. 시장경제에서 유발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혹은 혁신성장을 통한 사회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경제 주체 간 그리고 사회적 경제 주체와 민간 및 공공 경제 주체 간 네트워크와 협력
3. 특히, 대학이나 여타 연구기관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사회경제주체의 이해와 생각을 모아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과 지식공유
4. 지역 상공업 활성화 혹은 일자리를 증가하도록 공공 및 민간주체의 조달시장 활용
5. 사회적 경제주체의 다양한 사업모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전제조건, 지원제도, 특화 혹은 일반 금융 등을 제공하는 사회 및 제도 기반

사회적 경제의 에코시스템 평가

- 제주발전연구원(2015)『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고승환(2016) "제주지역 사회적 경제의 현실과 향후 과제" 등을 참조

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는 수단에 머물고 있어 시장을 포괄하는 새로운 사회 구성 문법으로서 인식하는데 이르지 못함.

Ⅱ. 사회적 경제의 주체가 국가 혹은 지역 경제성장 전략이나 전략을 이행하는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아주 희소함.

Ⅲ.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나 협력체계가 부재함.

Ⅳ. 사회적 경제를 통한 혁신과 지식공유가 부족함.

Ⅴ. 사회적 경제주체들에게 충분히 개방되지 못한 공공 및 민간 조달시장

Ⅵ. 다양한 사업모델을 갖춘 사회적 경제주체를 육성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사회적 금융 등 사회적 인프라 충분하지 못함.

제언

- 사회적 경제의 주체들과 지자체가 협력해 사회적 경제와 에코 시스템이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객관화·사회화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들도 양질의 일자리 제공 능력, 지역경제 활성화 및 포용적 성장 기여 능력 등으로 평가 받고 존재를 입증할 수 있음. 사회적 경제의 에코시스템도 평가를 받고 개선될 수 있음.
- 사회적 경제주체들과 지자체, 정부 대표자가 참여하는 각종 포럼을 통해 사회적 경제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필요불가결하다는 인식을 일반화해 정부 혹은 지자체가 경제전략 수립과정에 사회적 경제의 대표들이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제언

-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유아 및 노인 돌봄 서비스 등)를 사회적 경제의 틀을 이용해 제공하기 위해 기업, 중앙정부, 지자체, 대학, 노조 등 다양한 주체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협력이 필요함.
- 사회적 문제 해결 솔루션을 개발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네트워킹이나 협력을 통해 혹은 혁신 스타업을 육성·지원하는 인큐베이팅을 통해 사회적 경제가 혁신경제를 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지자체 혹은 중앙정부공공조달시장 혹은 지역내 기업들의 조달시장에서 일정 부분을 사회적 경제주체 혹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지원·육성하는 혁신 스타트업들에게 배분하는 제도적 장치 구비 필요
- 사회적 경제부분은 신규 주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원, 사업 지원제도, 인큐베이팅 기구 및 제도, 협력 및 네트워크 기구 등을 알리고 수요에 맞춰 확대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감 사 합 니 다

빈 재익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

‘더 큰 제주’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강종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

‘더 큰 제주’ 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2019년 5월

강 종 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Contents

1. 위기의 징후들
1-1. 국가성장모델의 한계, 위험사회
1-2. 성장없는 경제, 일자리 없는 사회
1-3. 인구절벽, 그리고 지방소멸

2. 새로운 처방… 사회적경제

3. COREA 더 큰 제주 프로젝트

국가성장모델의 한계, 위험사회

지금까지의 경제성장모델은 국가-지역-개인을 기계적으로 결합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한계는 그대로 지역과 개인에게 전가되었고
이는 지역과 개인의 존립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지역과 개인으로 전가되는 위험들

구분	전 략	한 계
국가 성장	• 전략산업과 연결된 공간(도시) 개발 • 농촌 인적, 물적 자원을 도시로 이동	• 국가적 전략산업의 부재 • 기업의 경쟁력으로 귀속 • 추가적 인적, 물적 자원 부족
지역 성장	• 지연산업과 연결된 공간(도시) 개발 • 중앙정부의 지원 등 외부자원에 의존	• 투자유치의 어려움 • 지역의 자산 부족 • 자본의 역외 유출
개인 성장	• 고등교육을 통한 전공, 특기의 개발 • 국가 및 지역에 필요한 분야에 동원	• 교육제도의 정체성 • 대기업의 글로벌화 • 노동시장의 변화

시민들의 불의/불안/불신 증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학자금대출 스터디 푸어	결혼자금대출 허니문 푸어	하우스 푸어	자녀교육비 에듀 푸어	실버 푸어

+

- 워킹푸어 300만명 내외
- 절대빈곤층 전체가구대비 14.1%
- 비정규직 정규직 대비 임금 56.5%
- 실업자 400만명
- 하우스 푸어 인구 20%
- 가계수지 2003년 이후 적자 지속
- 역외유출 GRDP 25% 수준(충남,2010)

자살률 세계 1위 (인구 10만명당 29.1명)
노인빈곤율 53.1% (OECD 평균의 4배)
공공복지지출 GDP 10.4% (OECD 평균 22%)

소득불평등지수	상위 5위
사회갈등지수	상위 3위
교통사고 사망률	상위 1~2위
출산율	하위 1위
사회자본지수	하위 5위

공익성 · 공정성 · 공개성 하위 4위

(OECD 33개국중 한국,2017)

성장 없는 경제, 일자리 없는 사회

'실직한 가장, 취업 못한 자식, 부양해야 할 노부모.
이렇게 실업자 3대가 함께 살아가야 할 판'

'노동 잉여세대' 1천만명 시대 도래...고용절벽에 무너지는 사람들






2018년 3월 현재 통계자료에 의하면 청년실업률 11.6%이지만 확장실업률은 24%로 심각함을 넘어 실업재난 수준

*청년 실업자(15-29세,'18,통계청) : (전체)53.7만명, (수도권)29.6만명(57.7%)

지역 청년은 **중소기업**의 임금, 지역의 근로환경, 사회적 인정 등을 이유로 **취업을 기피**, 수도권으로 이주하거나 **실업 상태 다수**

노동 능력이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청년 구직단념자, 경력단절 여성, 은퇴전 퇴직자, 장애인 등

2016년 기준 한국 노동 잉여세대 추계치

15세 이상 64세 미만의 생산가능 인구 중에서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수'를 합한 값

2016년 12월 기준, 12,321천명

베이비부머 세대 700만명... "은퇴빈곤층 위기 답답할 뿐"

- 은퇴를 앞둔 한국의 베이비부머(1955~63년생)는 대략 712만명, 한국 전체 인구의 약 15%에 달하는 거대 집단(임금근로자 300여만명)
- 20년 이내에는 1100만명(64년~74년생)에 달하는 경제활동인구가 일손을 놓고 오는 2030년에는 한국의 은퇴인구가 대략 18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인구절벽...그리고 지방소멸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는 인구절벽 시대에
지방은 임계점 이하로 인구가 줄어드는 소멸위기에 직면해있으며
지역경제는 외부의 작은 영향에도 큰 타격을 입는
취약한 구조로 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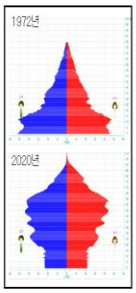
국가주도의 성장전략, 자기결정권 없는 지방



- 생존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대부분 중앙공급
- 지역의 공간과 자원은 중앙 시스템에 동원
  → 중앙 시스템의 문제발생시 위기대응에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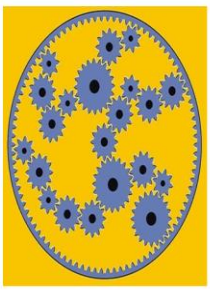


- 지역은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역량 부족
-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구조를 개편
  → 지역침체의 악순환, 위기의 가중



-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위기적 인구구조
- 지방의 위기는 대책 없는 도시로 도미노 가능성
  → 지역사회의 내부의 가장 큰 위기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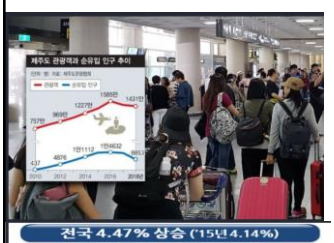




- 지역의 산업구조는 국가 산업구조의 파편화
- 지역의 경제구조는 대도시에 종속
  → 지역경제는 외부 영향에 취약

지금 제주는...'낙원의 역설'(Paradise Paradox)

"우리가 주민의 삶과 환경가치를 외면한 개발정책을 선택한다면
제주도민 역시 다른 나라 관광지역처럼 개발이익에서 소외된 채,
악화된 환경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저임금과 비정규직, 그리고 쓰레기와 환경문제에 봉착한 제주를
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겠느냐"











Contents

1. 위기의 징후들

2. 새로운 처방...사회적경제
2-1.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사회적경제
2-2. 포용적 혁신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
2-3. 유의미한 사례들

3. COREA 더 큰 제주 프로젝트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사회적경제

글로벌 주요 이슈와 사회적경제

전 세계가 인구구조 변화, 빈부격차, 고용불안, 기후변화 등 사회 · 환경적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시장실패와 정부 공공기능을 보완하는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IMF; 각종 언론 및 보도자료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사회적경제

구성원 간의 협력과 연대,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 유통, 소비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17.10.18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정의

OECD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EU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

캐나다 퀘벡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활동

- 구성원·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금지, 해산시 잔여재산 타법인 양도

모두가 바라는 따뜻한 일자리,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는 복지, 지역문화 활성화와 환경보전, 생활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사회적경제



함께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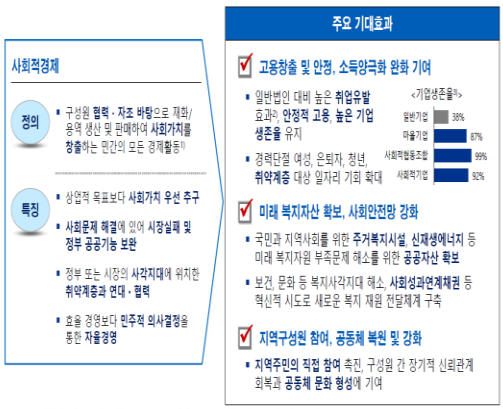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Community Solution으로서, 지역차원에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공급주체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발적 지역발전을 위한 건강한 추진동력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의 기대효과

사회적경제는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고용창출과 양극화 완화, 미래 복지자산 ·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되고 있음



1)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 경제기업은 총 14,948개 운영 중이며 총 91,100명을 고용(16년 기준)
2) 산출액 10억 원 및 취업유발계수 - 전 산업 12.6명, 협동조합 38.2명
3) 기업생존율 기준 : 사회적기업(진흥 후 3년), 마을기업(중부지원 종료 후), 사회적협동조합(등록 후 3년), 일반기업(창업 후 3년)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일자리위원회 · 고용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을 위한 가치와 경쟁력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연대경제 기업과 조직은 자립적이고 효율적이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들의 경쟁력은 그들의 활동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영향, 지역 공동체 혹은 그들 스스로에게 재투자된 경제적 수익이며, 그것은 그들이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능력을 갖도록 합니다.

사회적경제와 사회적연대경제 기업은 사회 정의와 노동권 존중의 가치에 뿌리 내린 질 좋은 일자리를 장려하고 창출합니다. 주권과 투명성이 그들의 공급망에 더 많이 나타나고 그들이 제공하는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주적 통치방식과 운영 실천은 그들의 핵심 존재 이유입니다.

이러한 가치와 원칙은 여성, 청소년, 노약자 및 장애인과 같은 소수 집단 및 취약 계층의 적극적 참여에 대한 헌신을 뒷받침하며 연대와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평화롭고 회복력 있는 사회의 토대입니다.

GSEF2018 - 빌바오 선언

포용적 혁신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

부의 불평등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도시 내 포용적 성장 회의



▲ 2016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도시 내 포용적 성장 회의 (Inclusive Growth in Cities Campaign)'.

파리액션플랜

△ **교육** 모든 사람들이 연령이나 배경과 무관하게 취업, 전반적인 삶의 변화 등에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포용적 교육시스템을 장려한다.

△ **노동시장 및 인적역량** 여성, 청년, 노인, 이민자, 장애인 포함 모든 사회 집단이 양질의 취업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포용적 노동시스템을 장려한다.

△ **주거 및 도시환경**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포용적인 도시환경을 구축한다.

△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기후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인프라와 공적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포용적 혁신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

지속가능 지역발전을 위한 패러다임 혁신

소규모(small)로, 지역(local)의,
개방(open)된, 연결된(connected)
밀라노 폴리테니크대학의 에지오 만자니 교수

중앙에서 하란 대로 지방에선 따로따로, 끼리끼리	지역 안에서 뭉치고, 엮고, 모으자!
정부재정에 기댄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정책	지역 재생과 활력을 도모하는 사회경제정책
보조금 지원에 매달리는 설부른 인큐베이팅 위주	시장조성과 사회적 투자 같은 자력성장과 활성화 중심
수익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영리기업 모방형	사회+경제적 가치측정에 의한 지속가능성 보장
개별 조직에만 내맡기는 시장경쟁 우위전략	네트워크 활성화 통한 사회혁신클러스터 구축전략
정부 가이드라인에 구속되는 무늬만 '제주형'	지역사회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 핵심과제 해결형
공공주도형	민관협력거버넌스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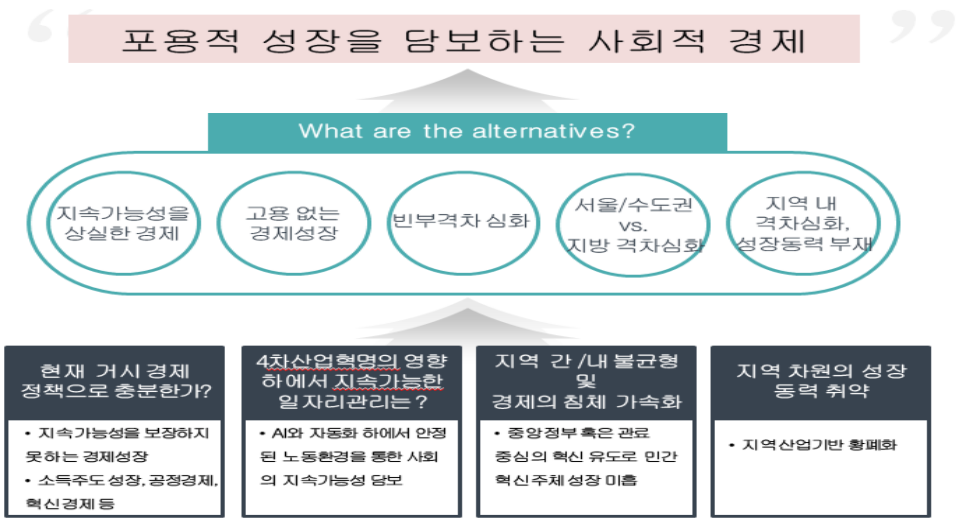
더 나은 삶, 더 큰 제주를 위한 혁신1



더 나은 삶, 더 큰 제주를 위한 혁신2

공공혁신	• 집행/관리자에서 조정/촉진자로 새판짜기
시장혁신	•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우기
시민(사회)혁신	•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거듭나기

포용적 혁신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



포용적 혁신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

성장동력 저하, 고용 창출력 약화 ⇒ **혁신성장**
우리 경제와 사회의 구조 및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사람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전략

분배 없는 저성장구조, 소득양극화,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 생태문제 ⇒ **포용적 성장**
대기업, 선도산업, 중소 및 중견기업, 신생 창업기업, 노동자, 지역사회 등 모든 국민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혁신과정에 참여하고 혁신성과를 함께 누리도록 하는 전략

배타적 소유권, 대중의 소외와 경제력집중 ⇒ **사회적경제**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복지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발전, 기타 공익에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지식경제로 이행: 규모의 경제에서 네트워크 경제로, 물적 자본 중심에서 아이디어와 혁신기술 중심으로
□스마트 공장 등 효율적 생산시스템
□혁신역량-투자-창업을 연결해 혁신거점 조성
□Negative 방식으로 규제 체계 개혁
□벤처캐피탈과 창업안전망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아니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중심가치로 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혁신 추진
□공공조달시장이나 민간 조달시장을 통한 지역 상공업자 대상 구매 우대 및 지역 주민 우선 고용 정책 추진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로컬푸드 운동, 공정무역, 도시재생

□협동조합, 마을기업, 비영리 사회적 기업, 신용조합과 마이크로 금융, 비영리단체, 자선단체, 사회투자부문
□관계재(교육, 보육, 보건, 돌봄 서비스 등)를 공급하는 사회서비스 부문
□AI, 빅데이터분석 등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공공재화

유의미한 사례들

캐나다 퀘벡주



- 캐나다 10개주 중 하나로 캐나다 남동부 위치
  - 면적은 154만km^2, 인구는 790만 명
- 아메리카 대륙에서 협동조합이 가장 발전한 곳
- **3000개**의 **협동조합** 존재, **조합원 880만 명** 이상
- 협동조합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78,000개**에 이름
  - **연 매출 180억 달러**(약 19조 8,000억 원)
  - **자산 1000억 달러**(약 110조 원)
- 협동조합 포함 사회적경제는 퀘벡주 전체 경제의 **8~10%**차지

이탈리아 볼로냐시

사회적경제 통해 시민의 필요를 충족	사회적경제가 경제의 주요한 기반	사회적경제 통해 사회통합 구현
▪ 생필품 구매 - 소비자협동조합	▪ 협동조합의 경제력 - 전체 지역생산량 대비 30%	▪ SE조직, 악자를 포용
▪ 문화 및 여가 - 도서, 문화협동조합		▪ 약 500여 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 볼로냐 시 당국과 협력 - 지역사회 서비스 공급 정책과 연계
▪ 고용 및 복지서비스 - 사회적 협동조합		
▪ 주택 및 건축 - 주택, 건축협동조합		
▪ 금융 - 신용협동조합		

스페인몬드라곤



몬드라곤그룹의 10대 운영 원칙

- 조합원 자격 개방
- 1인 1표주의에 기초한 민주적 조직
- 노동자에게 최고결정권 부여
- 자본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조적 도구
-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 임금의 균등화
- 조합간 협동
-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
- 사회 민주화와 정의 평화 등 보편적 가치 확산
- 교육 기회 제공

MONDRAGON HUMANITY AT WORK

몬드라곤 협동조합 개요

총 매출(2010년)	147억5500만 유로(약 22조 원)
종업원 수	8만4000여 명
협동조합 수	120개
주요 사업 영역	산업(제조업) 금융 유통 지식
생산 공장	80개
해외 지사	9곳
스페인 재계 순위	10위

Contents

1. 위기의 징후들

2. 새로운 처방... 사회적경제

3. COREA 더 큰 제주 프로젝트
   - 3-1. 제안배경
   - 3-2. 가치와 지향
   - 3-3. 핵심전략 및 중점과제
   - 3-4. 역사적 문화적 맥락

COREA 더 큰 제주 프로젝트

제 안 배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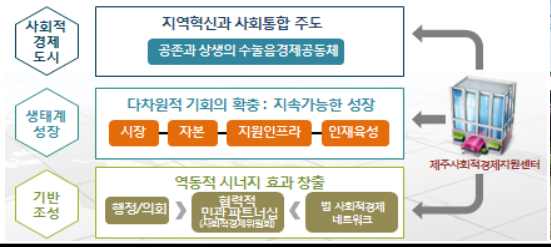
제 주 사 회 적 경 제 선 도 도 시



도민들이 '더 나은 삶'을 함께 누리고 우리 지역이 '더 큰 제주'로 도약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동력, 자연과 문화의 가치를 키우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공존과 상생의 '수눌음경제공동체'가 바로 제주가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이제 제주형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 그리고 공공경제와의 조화와 균형, 공유가치 창출을 통해 제주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2015년 제주사회적경제 비전선언문





COREA 더 큰 제주 프로젝트

가 치 와 지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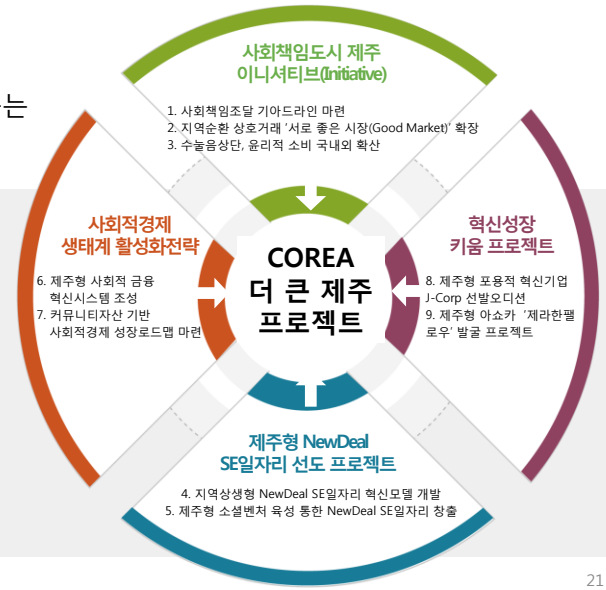


COREA 더 큰 제주 프로젝트

핵 심 전 략 및 중 점 과 제

지역혁신과 사회통합을 주도하는
제주형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사회적경제가 선도하는
'COREA 더 큰 제주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제주도 총 고용의 3%,
지역총생산의 5%를 차지하는
포용적 혁신도시 구현



COREA 더 큰 제주 프로젝트

핵 심 전 략 및 중 점 과 제

사회책임도시
제주 Initiative

사회적 가치와 지역경제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사회책임조달, 지역순환거래, 윤리적 소비 등을 통해 제주 사회적경제 전체시장 규모를 2025년 3천억 원까지 확대

Strategy 1

사회책임조달 가이드라인 마련

- 공공기관 사회책임조달 이행지표 개발 및 적용 확대
- '새로운 공공' 정책 패키지 전략 추진
- 바우처시스템을 통한 공공조달 혁신



지역순환 상호거래 서로 좋은 시장(Good Market) 확장

- 지역사랑 상품권을 제주형 지역화폐로 혁신, 사용처 대폭 확대, 복지연계 정책자금 발행, 모바일 전자상품권, 블록체인 융복합 등 다양한 방안으로 회전율 획기적 증대



수눌음상단(사회적경제종합상사) 윤리적 소비 국내외 확산

- 사회적경제 통합마케팅 전담조직을 통해 착한 보부상 프로젝트 등 전략적 시장 개척, 사회책임조달 및 윤리적 소비 촉진



COREA 더 큰 제주 프로젝트

핵 심 전 략 및 중 점 과 제

제주형 NewDeal SE새일자리 선도 프로젝트

선정 프로젝트에 예산, 인력, 금융 및 판로 등 다양한 자원을 특성에 따라 적 용가능한 방안을 조합하여 포괄적 패키지방식*으로 집중 지원

Strategy 2

지역상생형 NewDeal SE일자리 혁신모델 개발

제주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미래가치를 키우기 위해 도민생활 전반과 산업 전 영역에서 걸쳐 사회적경제가 선도하는 주민주도형 NewDeal SE새일자리 혁신모델 공모사업 추진







새로운 포용적 혁신동력으로서 지역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제주경제의 혁신적 변화와 함께 더 나은 NewDeal SE새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소셜벤처 단계별 맞춤형 창업육성 생태계 조성

제주형 소셜벤처 육성을 통한 NewDeal SE일자리 창출

2025년까지 사회적경제가 선도하는 '도민의 삶을 바꾸는 더 나은' NewDeal SE새일자리 3,000개 창출

COREA 더 큰 제주 프로젝트

핵 심 전 략 및 중 점 과 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전략

지역경제 지속가능성 및 NewDeal SE새일자리 창출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포용적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적 생태계 조성

- 2025년까지 사회적 금융 조달 규모 5백억 원까지 확대
- 2025년까지 읍면동 권역별 최소 1개소 이상 공유자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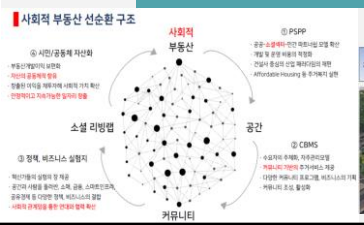
Strategy 3

1 제주형 사회적 금융 혁신시스템 조성





2 커뮤니티 자산 기반 성장로드맵 마련





COREA 더 큰 제주 프로젝트



핵 심 전 략 및 중 점 과 제

혁신성장 키움 프로젝트

포용적 혁신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인정하는 지역사회 지지망 확산을 위한 제주다운 사회성과 인센티브시스템 도입

Strategy 4

COREA 더 큰 제주 프로젝트

역사적 문화적 맥락

자조, 자율, 자립의 숨결



자주운항운동(1930년대)
제주항해조합/동아통항조합

학교바당(1950년대)
성산읍 온평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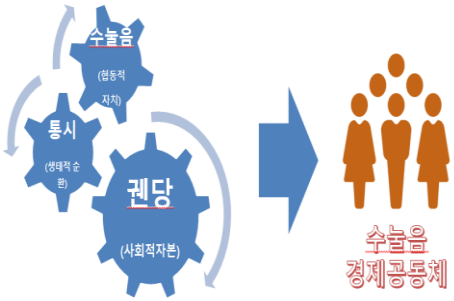
온평리 해녀들이 초등학교가 전소되자 바닷가에서 일부 구간을 정해 거기에서 나온 미역을 5년에 걸쳐 학교 건축기금으로 조성

맥크린치신부(1960년대)
한림읍 성이시돌목장 외

아일랜드 출신 맥크린치신부가 제주도민의 자립을 위해 농촌산업개발협회를 통해 한림수직과 사료공장 운영
이어서 한림신협과 이시돌의원 등 설립

'우리는 우리배로'
제주도민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소비조합(고순용, 김문준 등) 조합직영 선박운영 · 교통환

제주다움과 공동체



"제주는 오래 전부터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서로간의 신뢰와 품앗이, 그리고 상호부조를 통해
어려운 시절을 극복했던 공동체 문화, '수눌음' 의 전통을 이어온 지역입니다.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청정 자연과 제주다움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경제를 보듬어 왔던
'수눌음' 이야말로 제주형 사회적경제의 모델입니다.

덧붙여서...

Smart Social Island, 대한민국 디지털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제주





스마트 도시재생 교통이용약자(장애인, 아동 및 독거노인, 이주민, 관광객 등)가 아무 장벽 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Barrier Free 무장애 지역사회 만들기

스마트 커뮤니티 케어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들의 생활과 돌봄을 마을공동체의 참여와 스마트앱으로 해결하는 도시

스마트 보건의료 ICT 기반의 의료용 디지털 기기(텔레메디슨) 보급과 디지털 헬스케어시스템 환경 구축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더 자율적이고 새로운 방식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디지털 소비혁신 혁신기술과 기존 인프라를 활용,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상품권 이용자 선택 확대를 위해 제주지역에서만 통용되는 기명식 선불카드 운용

디지털 교육혁신 초.중.고교 및 평생교육에 디지털 학습자료 보급 및 확대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솔루션 제공

모두를 위한 제주, Jeju for All

제주에만 가면 어린이도, 노인도, 여성도, 장애인도, 가난한 사람도, 외국인도…

누구든지 자연과 벗하며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일궈낸 평범하지 않은 기적

공동체의 자산소유(Community Ownership)와 공동체 기업(Community Enterprise)이야말로 빈곤과 박탈, 사회적 배제를 제어하고, 권한이양과 고용 그리고 자조를 가능케 하는 힘이자 해결책

